광주·전남 내년 초 경정·경감 인사 앞두고

지방청 – 일선署 갈등 표출

지방청 근무자 중심 승진
일선서 근무자 소외 불만

내년 초로 예정된 광주·전남경찰청 경정 이하 경찰관의 승진 인사를 앞두고 지방청과 일선 경찰서 승진대상자들 사이에서 미묘한 갈등이 표출되고 있다.

일선 경찰서보다는 지방청 근무자들이 상대적으로 승진 혜택을 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22일 광주·전남지방경찰청에 따르면 내년 1월7일 경정·경감 승진시험이 끝난 뒤 있을 승진인사 대상자인 업무성과평가우수자는 각각 13명과 23명이다.

광주의 경우 지난해 일반경과 2명, 수사경과 1명이 경정으로 승진했으며, 올해 여경 3명을 제외하면 지방청 6명과 일선 경찰서 4명이 대상자 명단에 포함됐다. 전남은 지난해 일반경과 3명, 수사경과 1명이 승진혜택을 입었으며, 올해 여경 1명을 제외하면 지방청 9명, 일선 경찰서 13명이 경합을 벌일 예정이다.

특히 전남은 일선 경찰서 승진대상자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인사에서 지방청 근무자를 중심으로 승진자가 결정돼 또다시 일선 경찰서 근무자들이 소외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미 승진을 포기했다는 전남지역 한 경찰서 A경감은 "일선에서 고생하는 경찰관에게 우선 승진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나 지방청 근무자들은 일선 경찰서를 거쳐 승진할 시기에 맞춰 지방청으로 자리를 옮긴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주장이다.

광주지방청 관계자는 "일선 경찰들의 고충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승진은 그동안의 성과와 평점을 통해 이뤄지는 것"이라며 "지방청 근무자 상당수가 이미 경찰서에서 나름대로 인정을 받고 올라온 케이스"라고 말했다.

전남지방청은 이번 경정 승진인사에서 지방청과 일선 경찰서를 적절히 분배해 이 같은 마찰을 예방한다는 방침이다. 전남지방청 관계자는 "인사가 있을 때마다 이 같은 갈등은 발생했으며 공정한 인사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사랑의 밑반찬' 만들기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지사와 한국철도공사 광주본부, 한국가스공사 호남지역본부 등 10여개 단체 회원들이 22일 오전 광주시 북구 임동 적십자봉사관에서 결식아동에게 줄 밑반찬을 만들어 담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불경기 음주문화… 술 소비패턴도 바꿨다

소주·맥주 '웃고' 위스키는 '울상'

제약회사에 다니는 문모(31·광주시 북구 운암동)씨는 지난해 회사 송년회만 생각하면 아직도 아찔하다. 1차로 음식점에서 양주와 맥주를 섞은 '양폭'으로 '부어라, 마셔라'하는 분위기로 시작해 4차까지 이어진 송년회 때문이다. 하지만, 올해는 다르다. 삼겹살 식당에서 소주와 맥주를 섞은 '소폭'을 마시고, 2차로 간단히 막걸리를 마시며 한해를 마무리했다.

술집 등에 양주를 납품하는 A주류도매상은 예전 연말이면 밀려드는 주문들로 '즐거운 비명'이었지만 올해는 다르다. 연말 양주판매량이 가장 많이 증가하는 시기이지만 올해는 다른 해에 비해 비슷하거나 오히려 줄었다. 양주를 소비하는 업소들도 유흥주점과 나이트로 한정되고, 팔리는 양주도 저가형이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연말연시 잦은 송년 모임 술자리에서 양주를 찾아보기 힘들어졌다. 사람들의 술 선호도가 양주에서 이제는 소주와 맥주, 그리고 막걸리 등으로 옮겨가고 있기 때문이다.

22일 한국주류산업협회의 국내 주류 출고 동향을 보면 양주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위스키의 출고량이 ▲2007년 1만973㎘ ▲2008년 6908㎘ ▲2009년 4265㎘ ▲2010년 3177㎘ 등으로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올 9월까지 출고량도 2536㎘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75.15% 수준에 머물고 있다.

반면 소주는 올 9월까지 91만2928㎘가 출고돼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가량 증가했고, 맥주도 2%가량 증가한 141만9138㎘가 출고된 것으로 조사되는 등 3년 만에 증가추세로 돌아섰다.

끝을 모르는 경기침체가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10여년 전만 하더라도 회식자리나 연말연시 송년모임에서 양주를 빼고는 이야기를 할 수 없었다. '양폭'을 마셔야만 다음날 술을 먹었다는 말을 할 수 있을 정도였다.

하지만, 최근에는 얇아진 주머니 사정으로 모임을 하더라도 저렴한 소주와 맥주로 눈을 돌리게 되면서 '양폭'에서 '소폭'으로 폭탄주 문화도 바뀌었다.

그리고 최근에는 유흥주점 등에서도 선호도가 높은 소주를 판매하기 시작하면서 '이왕이면 저렴한 소주로'라는 생각으로 소주를 찾는 이들이 늘고 있다.

또한, 몇년전부터 불기 시작한 웰빙 열풍도 한몫하고 있다. 도수가 낮고 유산균이 살아 있는 막걸리가 웰빙 대열에 합류하면서 막걸리를 찾는 사람들이 늘어난 것도 이같은 현상을 뒷받침하고 있다.

/김경인기자 kki@kwangju.co.kr

나우찬 〈8466〉 김종두

화정주공아파트 재건축 사업비 대출 결의안 무산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이하 광주U대회) 선수촌으로 쓰일 화정주공아파트 재건축을 둘러싸고 재건축조합과 비상대책위가 반목을 빚고 있는 가운데 조합이 추진하려던 사업비 대출 결의안 처리가 무산됐다.

화정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3일 오후 서구 금호동 한 교회에서 임시총회를 갖고 5개 상정안전을 처리할 방침이었으나 정족수 미달로 부결됐다. 임시총회는 조합 정관에 따라 전체 조합원 2553명 중 서면위임자(1609명)를 제외한 10%(254명) 이상의 조합원이 직접 참여해야 하지만 193명만이 참석해 안건 의결에 실패했다. /김경인기자 kki@

홍도 산불 …3시간만에 진화

22일 낮 12시 50분께 신안군 흑산면 홍도(천연기념물 170호)에서 산불이 나 노송과 잣나무 등 원시림 0.1㏊를 태운 뒤 3시간여 만에 진화됐다.

불이 난 지점은 홍도리 남문쪽 야산으로 절벽이 200m가량 이어져 주민들은 배를 타고 진화작업을 벌였다. /서부취재본부=조완남기자 wncho@

광주경찰, 조폭 42명 검거 2명 구속

광주지방경찰청은 22일 "지난 10월24일부터 광역수사대 및 5개 경찰서에 조직폭력배 전담수사팀 10개팀 56명을 편성해 조직폭력배 특별단속에 나서 42명을 검거, 이 중 2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단속기간 중 검거된 조직폭력배들은 세를 과시하며 술값을 내지 않거나 업주를 폭행한 사례가 많았으며 성매매 알선이나 보험사기 등을 주도하다 적발되기도 했다.

광주경찰청은 올 한해 각종 범죄를 저지른 조직폭력배 141명을 검거, 이 중 25명을 구속했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서민 대상 갈취행위, 채권추심 빙자 협박 등 불법채권추심행위, 건설업 등 합법적 사업을 가장한 이권개입, 불법 게임장 운영, 도박장 개장 등의 행위를 뿌리뽑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광주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이날도 채권자에게 담보로 제공한 승용차를 빼앗은 조직폭력배 A(29)씨 등 3명을 공갈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한편 광주경찰청은 조직폭력배 피해사례 제보를 한 시민 5명에게 200만원의 범죄신고보상금을 지급하는 등 올 한해 동안 범죄피해사례 제보자 117명에게 4000만원을 지급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수입의류 훔친 10대 5명 덜미

광주 동부경찰은 22일 옷가게에 침입해 옷을 훔친 혐의(특수절도)로 최모(16)양 등 10대 5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최양 등은 13일 새벽 4시 30분께 광주 동구 충장로 한 수입의류점에 잠금장치를 풀고 들어가 점퍼 등 옷 30벌을 훔치는 등 이틀간 2곳에서 옷 45벌(1100만원 상당)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중학교 친구사이로 흘리스터, 아베크롬비 등 연예인이 입고다니는 수입의류를 훔쳐 인터넷을 통해 판매하려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이 가게 안에 있던 쇼핑백과 준비한 가방 등에 옷을 담아 택시를 잡아타는 모습이 주변 폐쇄회로(CC)TV에 찍혀 붙잡혔다. 경찰은 각자의 집에 보관하고 있던 옷을 모두 회수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단체협약 만료시한 관계없이 체결시점부터 임단협 임금 적용"

광주지법 "금호타이어, 노조에 10억 줘라"

노사간 임금 단체협약의 만료시한과 관계없이 체결 시점부터 임단협이 정한 임금을 적용해야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방법원 제3민사부 윤상도 부장판사는 "금호타이어 광주·곡성공장 3380명의 노조원들이 지난 2011년 4월22일 임단협을 통해 결정된 임금 15% 삭감안을 회사 측이 4월 1일부터 소급 적용해 임금을 지급한 것은 잘못이다"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이들 노조원들은 4월1일부터 21일까지 2010년도를 기준으로 임금을 적용해 10억여원을 회사로부터 받을 수 있게 됐다.

금호타이어 노조원들은 지난 4월22일 임금 삭감안을 체결하면서 회사 측이 지난해 임단협의 만료기간이 3월31일이라며 4월1일부터 삭감된 임금을 소급적용하자 이에 반발에 회사 측에 소를 제기한 바 있다.

재판부는 "통상적으로 금호타이어의 임금이 전달 21일부터 그달 20일까지의 근로 대가를 27일 지급하고 있어 임단협 이전에 이미 4월 임금이 정해져 있었다고 봐야한다"며 "대법원 판례에서도 임금 삭감을 소급적용하려면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한다고 명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금호타이어 관계자는 "지금까지 임금이 인상될 때는 관례상 임단협 만료기간을 기준으로 임금이 지급됐었다"며 "임금 삭감이라고 해서 그 기준이 바뀌면 안 된다"며 항소할 뜻을 밝혔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게임 중독 쌍둥이 형제 PC방서 절도

쌍나팔

○…게임에 중독돼 함께 가출한 쌍둥이 형제가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남의 물건을 훔쳤다가 나란히 경찰서행.

○…22일 광주광산경찰에 절도 혐의로 입건된 설모(20)씨 쌍둥이 형제는 지난 5일 오전 10시께 광주시 광산구 운남동 한 피시방에서 서모(18)군의 지갑을 훔쳐 60만원 상당의 직불카드를 무단으로 사용했다는 것.

○…경찰 관계자는 "쌍둥이 형제가 똑같이 인터넷 게임에 중독돼 가출, 절도까지 저질렀다"며 꾸지람.

/김경인기자 kki@kwangju.co.kr

장흥 관산농협 조합장 선거 돈살포 수사

농협조합장 선거과정에서 후보자의 선거운동원이 금품을 뿌린 사실이 드러나 경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다.

장흥경찰에 따르면 22일 치러진 장흥 관산농협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지난 21일 현 조합장인 이모씨의 선거운동원 김모(여·56)씨가 5만원이든 돈 봉투를 한 마을 조합원 12명에게 살포하려다 상대 후보측 조합원이 신고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은 22일 김씨를 체포해 돈 봉투를 건네게 된 경위에 대해 조사를 벌인데 이어 조합원 12명도 함께 불러 조사했다.

또 이 후보사무실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 받아 돈의 출처를 캐고 있다. 22일 선거에서는 위효복(58) 후보가 전체 1824표 가운데 1085표를 얻어 당선됐다.

한편, 당초 관산농협과 함께 치러질 예정이었던 장흥 정남진농협 조합장 선거는 후보자 K씨가 선거 이틀을 앞두고 갑자기 사퇴하는 바람에 강경일(54·전 정남진 농협 상무)씨가 무투표 당선됐다.

/중부취재본부=김용기기자 kykim@

예약접수 중
2012년 공무원 합격설명회 2012년
개강 : 1월 2일
이것만 알면 합격한다!
일시 : 12월 27일 오후 2시 30분 (좌석관계로 예약자 선착순 입실)
7급 종합반 | 9급 종합반 | 법원서기보 | 7·9급 검찰직 | 소방직 | 농업직 | 9급 야간반 | 기술직 | 사회복지직 | 행정 "강력단과"
당일 이벤트
최근 5년간 기출문제 무료증정
종합반 교재5권 무료추첨 5명
영어/ 한국사 교재 2권 무료추첨 10명
대한민국 대표 고시학원
한빛고시학원
광주 전남대 후문 북구청앞 (062)234-0234